

희망교실 사업비 '쌘짓돈' 전략 우려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야 할 '희망교실' 사업이 부실한 정산 시스템으로 인해 예산이 교사의 '쌘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희망교실은 장학국 광주시교육감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으로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 소외 학생이나 학교부적응 학생,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도입됐다.

학기 초 교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광주시교육청에서 심사를 통해 학급당(동아리) 연간 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광주지역 전체 초·중·고 학습수의 7% 넘는 6839개 희망교실을 선정했으며 총 32억2780만원을 지원했다.

대다수 교사들이 희망교실에 대

허술한 정산 시스템 일탈유혹 "사진 등 증빙서류 강화해야"

한 열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다고 교육청은 밝히고 있지만 예산을 모두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최근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여)씨가 희망교실 예산 50만원을 모두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A교사의 일탈은 학생들의 고발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학교현장과 교육청 내에서 정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희망교실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사업 시행 초 광주시의회에서는 희망교실 예산으로 학생 전체 생일 파티를 하거나 학급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교육청이 정책 도입 당시 일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희망교실 예산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한 것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희망교실 사업은 일선 학교에서 9월에 자체 점검을 하고 12월 교육청에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사용 영수증과 사업 진행에 따른 교사의 보고서만 있어

실제로 예산을 희망교실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예산 전체를 빼돌린 초등학교 여교사도 희망교실 예산으로 남편 안경을 구입하고 집에서 피자를 사먹었다. 이 교사가 영수증을 제출한 뒤 학생 안경을 구입하고 학생들과 피자를 먹었다고 하면 이를 확인하는 쉽지 않다.

교사들이 일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증빙서류를 확대하는 등 안전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희망교실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하고 홍보까지 했는데 횡령사건이 발생해 안간갑다"며 "예산 사용에 따른 사진을 첨부케 하는 등 정산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아파트서 불...주민 4명 연기 흡입

2일 오후 1시8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119에 의해 32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15층에 사는 주민 4명이 연기를 흡입, 소방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14층에 사는 주민 2명(중학생 추정)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임형택 기자

"화나서 버렸다" 돈 돌려받기 거부한 40대

서울 관악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견된 7만2000달러 봉투의 주인은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작 주인은 돈을 돌려받기를 거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8일 관악구 신림로 골목길 담장 위에서 발견된 7만218달러(약 800만원)의 주인은 이모(44·부직)씨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8일 오후 6시 관악구 신림로 소재 옆 담장 위와 원통 입구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에 미화 7만218달러를 버렸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 고시생 박모(39)씨가 버려진 돈을 발견, 인근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신고했다. 발견된 달러에는 일련번호가 연속으로 찍혀 있었으며 모두 신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인근 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7일과 1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달러로 인출해 약 한 달 동안 보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 800만원을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달러로 인출해 보관하던 중 나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돈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또 이씨는 버린 돈 7만2000여 달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매장서 2억원대 스마트폰 등 훔친 40대 검거

스마트폰 매장 등에서 노루발 뭇뺨이(일명 뺨뺨)를 이용해 총 2억원대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노루발 뭇뺨이로 비상문·출입문을 부수고 스마트폰 매장에 침입, 2억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특수절도)로 장모(4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경기 일대 스마트폰 매장과 편의점 문을 부수 후 스마트폰 224대와 현금 800여만원 등 2억4000만원의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루발 뭇뺨이는 금속으로 된 공구로 건설 현장에서 주로 쓰인다. 장씨는 노루발 뭇뺨이로 비상문 틈을 열거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순 후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스마트폰과 현금 등을 쑤 넣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해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한편 1분 안에 범행을 완료해 매장 담당 경비업체가 출동하기 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씨는 범행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차량 털고 훔친 카드 사용 10대들 입건

부산 동래경찰서는 2일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털고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A(17)군 등 10대 청소년 8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8월 4일 오전 1시에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80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현금 4만7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들이 렌터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 렌터카를 추적해 이들을 차례대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남 유통 축산물 식품 첨가물 등 검사 '적합'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남에서 유통되는 축산물 가운데 인기 품목을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남 축산물가공업체 24개소에서 생산된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을 수거해 이뤄졌다.

병원성 미생물 유무, 식품첨가물 첨가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식육 및 진공포장식품, 햄 및 훈제류 등 101건을 대상으로 축산물 가공 기준 및 성분 규격 규정에 따라 건조열량법 등을 이용해 살모넬라, 대장균 등을 검사했다.

이화학적 검사 방법을 이용해 휘발성염기질소, 보존료 등 첨가물 정량검사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체 품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전남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에 대해 병원성 미생물 및 유해물질 확인검사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며 "전남에서 생산한 축산물 및 가공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시무식은 연탄 봉사로 현대백화점그룹이 2일 오전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연탄 봉사 시무식을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약 200여명의 임직원과 고객이 26가구에 연탄 약 4500장을 직접 배달했다.

담뱃불 부주의로 삼남매 숨지게 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담뱃불을 끄려다 실수로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1시2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101호 법정 주변에 도착한 친모 A(22·여)씨는 담뱃불을 끈 상황을 기억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전날 "자녀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토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방 입구 바깥쪽에 놓인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실수로 불을 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0일 오후 7시40분께 외

출한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오전 1시50분께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은방 입구 앞쪽에서 방장고에 기대 담배를 피우던 중 막내딸이 들어 이불에 담뱃불을 켜고, 작은방에 들어가 딸을 달래주다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이 난 사실을 알게된 뒤 작은방에서 전 남편 B(21)씨와 B씨의 친구, 112에 차례로 신고하고 전화를 받게 두고 밖으로 나왔다. 막내딸을 구하려고 다시 방쪽으로 가 불을 끄려던 중 화상을 입고 배란다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나만 살아서 죽고 싶다"며 사흘째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치사·중실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에서 이불에 담뱃불을 비벼 꺼불이 나게 해 네 살과 두 살 배기 아들, 15개월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발화 지점이 작은방 안쪽 또는 입구쪽으로 추정되는 점과 A씨가 신고할 시점에 불길의 방 안쪽으로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화점과 고의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용규 기자

